

# 임기만료 앞둔 지방 은행장... 연임 변수는 '실적·내부통제'

부산·iM·경남·광주·전북은행장 오는 12월부터 임기 순차 종료 초임 은행장으로 연임 가능성 높아 지방 소멸 속 전략·비전 주요 평가



(왼쪽부터) 방성빈 부산은행장,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5대 지방은행의 은행장 임기가 잇따라 만료된다. 5명의 은행장 모두 초임 은행장으로, 지방은행장은 통상 1~2년 단위로 연임해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임기 내 실적과 내부통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의 은행장 임기가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12월 말에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의 임기가 차례로 만료되며, 내년 3월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임기를 마친다.

각 은행은 금융당국의 '지방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행장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후보군을 결정해야 한다. 5명의 은행장 모두 초임 은행장인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관건은 임기 내 경영 실적이다. 인구 유출 및 불황 장기화로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임기 내 실적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한 평가 요소다. 지난해부터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지방은행 중에서도 iM뱅크와 경남은행이 지난해 금융사고로 흥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내부통제가 은행권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북은행이 지난 상반기에 전년 대비 10%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핵심 전략인 외부 핀테크 연계를 통한 대출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 대출 취급 확대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만큼, 건전성 관리에 백 행장의 과제로 남았다.

백 행장과 같은 시기 임기를 마치는 고병일 광주은행장도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상반기 전년 대비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고 행장의 전략인 수도권 영업 확대 또한 순조롭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도 12월 말 임기를 마친다. 황 행장은 지난 3월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취임해 은행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지주 회장을 겸하는 행장이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iM뱅크가 지난 3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했고, 황 행장이 시중은행 전환을 초기부터 지휘했던 만큼 전략 연속성을 위해 연임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iM뱅크의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iM뱅크 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행장을 포함한 내부후보군에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임추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부산은행이 지난 상반기 5.6%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 흠이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부산시 금고

입찰 경쟁에서 국민은행, 기업은행을 꺾고 부산시 1급고를 사수하면서,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 시금고 입찰에 경쟁이 진행된 것은 24년 만이다.

같은 시기 임기를 마치는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연임 여부는 내부통제가 변수로 남았다. 경남은행은 지난 상반기 전년 대비 2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체율도 지방은행 최하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내부통제 강화가 주요한 과제다.

해당 금융사고가 예 행장의 임기 이전에 발생했던 만큼, 예 행장의 연임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소멸로 각 지방은행이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차기 은행장 결정에는 실적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이나 비전도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신한카드 창립 17주년 기념식 지속가능 미래 다짐

신한카드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한카드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짐하는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창립기념식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과 임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 신용카드 고객과 10만 번째 포인트플랜 카드 고객, 우수 패널 활동 고객도 자리를 빛냈다.

## 롯데카드-서울특별시 지역 경제 활성화 로컬푸드 판매 행사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롯데카드는 '핑크어스데이(feat. 넥스트로컬): 상생 마켓 인 서울광장'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ESG 기업이 자사 브랜드와 상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다. 상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ESG 기업에 지급한다.

행사는 ▲크리에이터존 ▲브랜드 월 및 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했다. 인증 사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정태영 정태영 부회장(왼쪽)과 이상엽 현대차 부사장이 디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현대카드

##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6만명 참여 지역 축제로 발돋움

현대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진행한 다빈치모텔에 관객 6만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다빈치모텔은 장르를 다양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변 매장과의 협업을 확대하면서 지역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처음 시도한 글로벌 티켓 예매도 전량 매진에 성공했다.

공연과 토크는 물론 ▲렉처 퍼포먼스 ▲음감회 ▲퍼포먼스 아트 ▲비즈니스 인사이트 세션 등을 선보였다. 김신록 배우는 렉처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만의 연기론을 펼쳤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

# 보험사도 '밸류업'...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정교화

당국,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지급여력 높으면 해약환급금 준비 ↓ 자본건전성·배당가능이익 확보 기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

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를 확보하고, 200% 미만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100% 확보해야 한다.

2025년 지급여력비율이 190% 이상인 보험회사는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 190% 미만일 경우 현행 대비 100% 적립해야 한다.

해약환급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 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 연신내역 청년안심주택 '루미노816',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

전용 17㎡, 35~39㎡ 총 299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180세대 공급

지하철 3·6호선 역세권에 들어선 청년안심주택이 입주자를 받는다.

1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고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원에 위치한 '루미노816(Lumino816)'이 오는 3일부터 민간임대 180세대를 신규 모집한다.

루미노816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개동, 전용면적 17㎡(청년 대상)와 35~39㎡(신혼부부 대상), 총 299세대 규모다. 이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180세대(특별공급 36세대, 일반공급 144세대)를 공급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상이하다. 청년 기준 일반



루미노816 투시도. /루미노816 홈페이지

공급 세대는 보증금 4300만~5700만원에 월 39만~45만원, 특별공급 세대는 보증금 3600만~4800만원에 월세 32만~38만원 수준이다.

주택 관계자는 "제시된 비용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공공관리비는 청년 7만6000원, 신혼부부 15만원선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택은 3·6호선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총무로, 서울역, 고속터미널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돼 서울 중심부와 강남권을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동하기 편하다.

인근에 불광천, 불광근린공원 등이 있어 자연친화적이며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엔씨백화점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 쉽다. 주택 내부에는 코인세탁실, 북카페, 피트니스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아쉽

지만 초역세권에 들어선 신축 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이 목적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은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약신청은 6일까지 4일간 이뤄지며 대상자 발표는 8일이다. 루미노816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11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